베다경전 뿌리둔 梵我一如 사상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⑨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②—베단타학파 ㊤

우주 본체와 개인 본질 합일통해 해탈 이르러

인간의무 성실수행 중시… 창조론적 '神' 부정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렇듯이, 불교도 베다의 사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베다라는 말은 '지혜'를 뜻하며, 오랜 옛날부터 구전(口傳)되어 오다가 문자로 기록된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포함한다. 코란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며, 성경은 여러차례의 협의과정(結集)에 의하여 공인받은 책들만 묶은 것인데 비해, 인도에서 베다의 신성(神聖)함은 유사(有史) 이전부터 확립되어 온 것이다.

하나의 實在만 존재

베다는 찬가(讚歌), 기도, 주구(呪句), 연도(連禱), 주석, 명상, 제사, 가영(歌詠) 등을 집대성하고 있다. 그것은 신성(神性)의 작품으로, 하나의 세계가 소진될 때마다 브라만신(神)에게 계시된다. 브라만은 영원한 베다의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창조한다. 따라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실재로 '바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위'라는 베다의 말이 필요하다.

인도 육파철학(六派哲學)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인 베단타는 베다 경전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베단타는 '베다의 말미(末尾)' 또는 '베다의 심오한 경지'를 뜻한다.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이 베단타는 '우파니샤드(奧義書)'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름을 딴 베단타학파는 우파니샤드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해석을 하였다.

베단타는 종교적으로도 범신론(汎神論)적 다신교이며, 사상적으로는 일원론(一元論)이다. 사상적인 면에서 베단타는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스피노자(Spinoza) 그리고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 철학에 가깝다. 베단타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하나의 실재(實在)만 존재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면 브라만(梵)이 되고 주관적으로 인식되면 아트만(我)이 된다. 그 실재는 비인격적이며 유일한 존재이다. 이 세계에도, 신에게도 복수성(複數性)은 존재치 않는다. 파르메니데스도 이 세계에는 다양성이 존재치 않는다고 말했다. 엘레아학파의 제논(Zenon)도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이 내부에서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역설을 만들어 냈었다. 상카라(Sankara, 8세기 베단타철학자)는 단지 하나의 사고주체(브라만)이 존재하고 그 본질은 영원한 현재라고 믿었다.

브라만은 주기적으로 우주를 파괴하고 재창조한다. 그러나 이 파괴와 창조는 본질적으로 마술적이며 환각적인 작용이다. 베다에 이미 기록되길, 신은 마야(Maya, 幻)의 마력을 빌어 외부세계를 창조하는 마법사라고 한다. 우주의 주기적인 창조와 파괴를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이 창조와 파괴의 주기성은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되고, 다른 한편 그것은 한가한 신성의 끝없는 장난으로 여겨진다. 헤라클리토스도 "시간은 주사위를 던지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그 아이는 무서운 힘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17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안젤루스 실레시우스(Angelus Silesius)는 "이 모든 것은 신성의 장난이다"고 했다.

◇베단타학파는 찬가·기도·명상·가영 등을 집대성한 베다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며 체계적 해석을 했다. 사진은 베다에서 춤의 주(主)로 칭송한 쉬바 나타라자가 탄다바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탄다바 춤은 영겁으로 순환하는 창조·유지·파괴를 나타내며 삶과 죽음의 균형을 의미한다.

> "인간의 잘못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데 있다 욕망이 영혼을 얽어매게 되고 이로써 계속 윤회하게 된다"

세상의 거짓된 본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카라는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뱀으로 보이는 것이 실재로는 새끼줄이다. 그러나 그것이 뱀이든 새끼줄이든 실제로는 신(神)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지(無知) 때문에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고, 세계를 실재(實在)로 착각한다. 세계는 무지와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모두 본질의 겉면에 불과할 뿐이라고 상카라는 말한다. 마야(幻)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과 빛이 불의 속성인 것처럼, 마야는 신의 속성일 뿐이다. 신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한다면, 환상 따위는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우주는 거대한 환영(幻影)이며, 육체, 자아, 창조주로서의 신의 개념 등은 그 환영의 부분적인 모습일 뿐이다.

우주는 거대한 幻影

사물의 비실재성을 강조하는 베단타 철학은 결국 아트만(我)이 브라만(梵)을 철저히 인식하여 그와 합일함으로써 해탈에 이른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를 가르친다. 베단타의 궁극적 가르침은 '네가 바로 브라만이다'로 귀결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비록 몸을 가지고 세상속에서 살지만 그것이 환영이란 것을 잊지 않는다. 신은 복된 자이며, 해방된 영혼 역시 그러하다. 이런 교설(教說)들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베단타의 가르침은 '네가 그것이다(Tat twam asi)'와 '나는 브라만이다(Aham brdhmdsmi)'라는 유명한 두마디로 요약된다. 둘다 대우주의 본체(梵)와 개인의 본질(我)이 일체라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이 말들은 세계를 만들었다가 부수는 영원한 본질이 우리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류 전체가 파멸되어도 한 사람만 살아 남는다면, 우주는 그로 인해 다시 복원될 것이다.

베단타의 다른 철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의 근본적인 잘못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여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것이라고 한다. 그 욕망이 영혼을 세계에 얽어매게 되고, 이로서 계속 윤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다가 알려주는 인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우리들은 창조주를 사랑해야지, 피조물을 사랑해서는 안된다.

편역 :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현정 〈고려상사 대표〉

'남을 수용하자' 인욕공부 첩경삼아

'자비의 전화' 상담 "봉사아닌 '나' 찾는 계기"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복덕은 불가사량'이라 했다. 바라는 바 없이 남을 위해 하는 일의 공덕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큼을 이르신 말이다.

자비의 전화에서 내담자의 전화에 응해 그들과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그들의 힘들어 하는 문제해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되는 이 일이야말로 '무주상보시'의 가장 큰 사례라 생각된다.

그것은 전화상담이 원래 얼굴도 이름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봉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굴도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경우란 전화상담 말고는 사실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않으려 해도 서로 얼굴을 맞대면 자연 그 공덕을 즉시 되돌려 받게 마련이니까.

저의 경우 오랫동안 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이제 남은 세월에 무엇인가 부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의 일부라도 회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던 중,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원을 모집하는 안내를 보고 교육을 받은 뒤 전화상담을 시작한지 1년 반 가량 됐다.

처음에는 내담자의 전화에 응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하소연도 듣는 일이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로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점점 그 생각이 바뀌어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왜냐하면 전화상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그 상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더 돌이켜 보게 되고 마음을 구석구석 들여다 보며 반추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는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음도 실감하게 되고, 나의 지금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며 음미하게 되면서 생활속의 참된 수행이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자신과 남의 생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남에게 대는 잣대와 나에게 대는 잣대를 하나로 해서 치수를 재보면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또 남을 비난하던 많은 일들이 나에게도 흔히 일어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는 등 생활속의 참수행에 이 자비의 전화만큼 큰 스승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비의 전화의 제1 수칙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수용한다는 것이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전화를 받다 보면 수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남을 수용한다는 것보다 더 큰 덕목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육바라밀중 인욕바라밀을 키우는 첩경이기도 하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 나가고 수행하여 참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는가. 하지만 생활하는 불자로서 물질적인 여유가 없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혹 육체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보람된 일 하면서 자기공부가 확실하게 되는 이 자비의 전화 상담을 여러 불자님들께 권하고 싶다. 내 경험은 이런 권유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상담원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동참하시는 분의 보람 또한 다른 활동에 비해 더욱 크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고뇌와 외로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작금의 세태가 아닌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나마 마음놓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이웃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만 가는 것 같아 가슴아프다.

가장 효율적으로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고 마음공부 또한 확실히 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자비의 전화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이제는 우리 불자들도 움직이고 활동하는 참보살행을 해야할 때가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타종교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부끄러워 할 때 또한 된 것 같다.

나는 내가 누군가의 정신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벅찬 생각이 들 때마다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부끄럼이 없는 불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솟아오른다. 그곳에서 나는 그림공부를 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만큼 충실한 불교 입문서 보셨습니까?"

- 사찰에 들어서서 부터 나올 때까지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이 알기 쉽게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불자의 기본 예법 설명을 위해 자세하고도 다양한 130여 컷의 사진과 그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예절을 비롯하여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님에 대한 예절은 물론 사찰에서 당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깨·달·음·을·향·한
불교예절

권영한 지음
신A5/값 6,000원

우리의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그릇 속에 담긴 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항상 몸을
단정히 하는 수행이 먼저 따라야 합니다.
불교에서 계율과 예절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한권의 책이 초심자를 위해 불교예절의 길을 안내합니다. 어렵게만 알고 있던 불교 예절이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전원문화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8-6 전화 (02)704-1626, 1628 FAX (02)718-2837

"조계종 선정 청소년 도서 5위"

완전한 불교 전서!!

불문(佛門)에 입문하셨으면
그곳의 예절을 아셔야 합니다.
《예불하는 마음의 자비를》은
불문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지음
신A5/374면/값 15,000원

전국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벽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벽화를 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불교에 입문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리사찰의 벽화이야기

- 전국에 산재한 우리 사찰의 벽화들을 총망라하여 불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 주제별 13장의 쉬운 구성과 300여 장의 컬러 사진을 수록하여 불서의 생생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권영한 지음
신A5/302면/값 10,000원